

現代官僚組織에 있어서의 階層制 役割의 防衛에 關한 考察

Reflections on the hierarchical role defense
in Modern Bureaucratic organization

金雲泰

— 目 次 —

- 一. 序論
- 二. 問題提起
- 三. 官僚制의 特徵
- 四. 專門化
- 五. 階層制
- 六. 葛藤 以上 第三卷 第一號(1965.
Vol. III No. 1)既載
- 七. 階層制의 役割防衛에 關한 考察

- (1) 序說
- (2) 階層制役割 防衛量 為한 象徵操作
- (3) 上級者에 對한 尊敬과 服從狀況의 造成
- (4) 法規萬能主義
- (5) 指導性問題
- (6) 人間關係學 또는 管理的 社會心理學의 撞頭
- (7) 一元的 階層制의 責任體系
- (8) 劇化的樣相

(1) 序 說

現代官僚組織이 專門化過程의 促進과 이에 따르는 組織內의 各種의 葛藤狀況의 露呈으로 말미암아 그 傳統的인 階層制役割의 正統性이 威脅에 直面하게 되었음은 앞에서(第三卷 第一號) 詳細히 論述한바와 같다.

大體로 傳統的인 한體制의 正統性은 究極的으로 或種의 非合理的인 「카리스마」的 要因에 依存하는 것이었지만⁽¹⁾ 官僚組織의 發展은 必然的으로 「카리스마」性의 衰退를 가져오고 이와같은 「카리스마」性의 衰退傾向은 階層制 職位의 正統性을 威脅하였다. 即·組織目標遂行에 있어 專門化의 効能이 促求되고 아울러 組織內에서 職務遂行을 為하여 人間의 能力과 職位上의 權威間의 乖離現象이 擴大됨에 따라 階層制職位의 正統性은 威脅에 直面한 것이다.

前民主主義時代에 發生한 階層制의 觀念과 役割은 現代社會의 民主的 規範과 漸次 衝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衝突은 現代「테크놀로지」의 發展에 따르는 끊임없는 專門化의 促

(1) Talcot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37. p. 665

進과 그리고 不平等의 止揚 및 個人的 發展에 對한 各種 障害가 克服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助長되고 있는 것이다. 무릇 傳統的 階層制內의 服從 또는 身分關係로 因하여 造成된 非民主的이고 歪曲된 權力의 配分現象은 階層制役割의 正統性意識이 衰減됨에 따라 漸次 不正義의 意味로 認識되게 이룬 것이며 여기서 階層制에 對한 不滿 批評 懷疑를 자아냈다. 特히 行政官僚制에 있어서는 所謂 特別權力關係라는 「이데올로기」 操作으로서 이와같은 矛盾이 어느程度彌縫되기도 하였으나 私營企業體의 階層制下에서는 그 階層制役割의 弱化에 對한 役割防衛를 爲하여 格別한 諸社會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即 지난날의 大部分의 카리스마의 인 資本家 및 經營家의 「이메지」와 權威가喪失된 오늘날 그들은 都是 實業家로서의 實力行使에 威脅을 받게 되자⁽²⁾ 이에 反撥하여 組織上의 諸價值를 恣意로 歪曲하여 分配하고 人道主義를 背叛하여 私利追求에만 汲汲하게 되었으며 結局 낡은 個人主義的 企業體制는 資本家의 富와 權力追求를 獨占하기 爲한 方途로 墮落하고만 것이다.

그리고 近代社會에서는 富와 權力を 追求하는 낡은 方途로서 個人 企業組織이 流行되어 이 것이 「카리스마」의 指導性의 温床이 되어 왔지만 現代에 이르러 企業의 結合 및 資本의 集中傾向과 더불어 大規模의 企業의 官僚制組織을 가추게 이르렀고 이러한 官僚制의 階層制內에서는 「카리스마」의 指導性이 많이 衰退되었다고는 하지만 亦是 組織上의 各種 諸價值가 配分되는 過程을 보면 顯著한 不公正性과 非民主性를 露呈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何如間에 現代組織은 앞에서도 論及한바와 같이 그 專門化의 促進과 더불어 그 傳統的인 特權과 階層의 既得의 權限의 剝奪當할 威脅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에 階層制의 立場에서 그 傳統的 地位와 役割을 어떻게 守護하느냐 하는 問題 換言하면 現代官僚制內에서 階層制役割의 正統性과 그 權威의 正當性을 昂揚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가 되어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課題는 낡은 意味에서 各種의 象徵을 操作(symbol manipulation)하여 役割을 防衛하는 問題로서 다음에 credenda와 miranda의 二個의 範疇로 大別하여 論考하고자한다.

(2) 役割防衛를 爲한 象徵操作

무릇 어떠한豫測할수있는 方法으로 他者에게 影響을 및이는 能力を 權力(power)이라고 한다면 이 權力이 信念으로서 正當化되고 正統的인 것으로 看做되는 경우에 所謂 權威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權力を 掌握하고 있는者は 赤裸裸한 實力行使을 避하여 權力의 土臺

(2) 實業家의 카리스마의 指導性的喪失倾向은 有力한 勞動組合의 鐘頭와 政府에 依한 各種 規則의 增加 그리고 나아가서는 漸次 實業家가 從來 依存해 왔던 white collar의 支持를 받지 못하게 이는 事實 또는 獨占化傾向에 대한 社會의 與論 그리고 大恐慌等에서 起因된 點도 注目된다. (Alvin W. Gouldner, Studies in leadership, leadership and Democratic Ac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pp. 133 ff 參照)

로서 正統化를 폐하고 權力を 正當화하기 為하여 各種의 象徵操作을 試圖하는 것이다.

即 權力 또는 權威關係는 살아 있는 人間에 對한支配 또는 影響力이니 단큼 最少限度 相對方에 反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은 理性的인 同時에 感情的인 動物이기 때문에 權力이나 權威를 行使하는 支配者는 自己의 命令이나 指導가 被統率者(個人 或은 集團)에게 받아 들여지게끔 그에게 理性的 或은 情緒的反應을 不斷히 再生產하여야 한다. 이 反應을喚起하는데 失敗한다면 結局 最後의 手段으로서 單純한 暴力 即「赤裸의 權力」(naked power)⁽³⁾을 發動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暴力은 가장 劣等한 方式의 權力手段으로서 如何한 統率이나 或은 支配도 暴力에만 依存해서는 지탱할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實力이라는 것은 敵對의이고 不滿을 가진 相對便에 對抗하여 存續할수 있을 程度로 完全히 強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此種의 暴力은 다른 어떤 高次의이고 文明的인 方式으로서 代置되고 可及的 直接的 暴力行使을 節約하여 所謂「權力의 經濟」⁽⁴⁾에 留意하여 服從 即 同調樣式을 造成하는 技術이 必要하다. 그리고 이 技術의 最終的目的은 被統率者의 反應이 거의 自動的이고 慣性的 性格을 畏을 程度로 訓練시키는데 있는바 如斯한 技術의 効能은 宣傳의 範圍 그 持續期間 「스테레오·타이프」(stereotype)⁽⁵⁾를 創造하고 한 對象物 制度 人格 人間行爲等의 型을 代表하는 技術에 依存하며 이 技術이 곧 象徵의 操作(symbol manipulation)인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理性을 가진 以上 人間이 人間을 支配하고 있다는 冷酷한 事實을 어찌한 理性的合理的인 根據에 依하여 正當化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것은 支配하는 少數者에서나 支配를 받는 多數者에게도 그러하다.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는 것이 合理化의 象徵(symbol of rationalization)이다.

가령 現在의 權力掌握者가 가장 有資格者라던가 또는 現在의 權威體系가 모든者를 為하여 適合하다던가 또는 그權利가 있다든가하는 表示를 通하여 合理化하는 것이다. 그리고 制度的 構造에 關해서는 關心을 疎外시켜 어찌한 결합이나 惡도 權力構造自體에 起因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的 缺陷이나 또는 不可避한 事情에 起因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한편 人間은 情緒的으로 不條理한 存在이며 合目的的인 利害만을 動機로하여 行動하는 것 이 아니라 一定한 「이데올로기」에 依하여 形成된 政治的 教義는 象徵 또는 言語를 通하여 傳達되며 象徵 그 自體는 合理的 非合理的 倫理的인 그 어느것도 아니지만 人間의 政治的思考와 行動을 體系化하는 指針이 되면서 共通的 集團行爲를 可能케한다. 即 象徵操作의 過

(3) B.A.W. Russel, Power, its Social analysis. 1938. ch. VII.

(4) C.E. Merriam, Systematic politics. 1945. pp. 102. ff.

(5) stereotype 는 語源上 어떤 鑄型에서 부어낸 鉛版이란 意味에서 精神醫學者는 이를 一種의 精神病인 常固定症(stress type)에 比喻하였고, W. Lippman 은 public opinion 1922. part III에서 最初로 이 概念을 導入하였다. 大衆社會에서는 Mass Com.에 依하여 大衆의 心理에 一種의 瘋癲狀態가 생기고 大衆心理에 特定的性格이나 傾向을 띠운 意見 또는 一定한 心理的 雾團氣가 造成되어 이것 이 輿論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程을 通하여 政治的 觀念이나 價值 그리고 情緒는 複合의 形態로 一般化되고 單純화되며 共通的 人間思考와 行動을 基礎지우는 本質의 心理的 統一性을 準備하게 된다. 이와같은 心理的 統一性에 依하여 政治行動의 倫理化가 이루워지는 것이다.

그와 同時에 人間은 情緒의이고 非合理的의 存在이기 때문에 合目的的인 動機만으로 움직인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正義를 實現하는 힘은 單純한 實力이 아니라 人間情緒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感情 抱負 道德 賢人의 格言 또는 높은 水準의 여려가지 文化團體가 提示하는合理化된 여려方式等에 깊이 간직 되어있는 힘일 것이다.

따라서 權力이 人間의 全心的인 讚揚과 忠誠을 期待하려면 人間의 耳目 그리고 美學的 意識에 對하여 同調反應을 造成하는 여려가지의 象徵을 操作할 것을 계울리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勿論 權力에 對한 讚揚과 忠誠이 이와같은 心理的 過程만을 갖이고 充足될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基本的인 正當性 根據에 그權力이 底礎되지 않으면 안됨은 再論할마 아니며 다만 여기서는 階層制 權力의 手段으로서 象徵操作이 가지 重要한 意義를 示唆할 難이다.

心理學者에 依하면 社會的 動物인 人間은 元來 孤獨에 對한 恐怖를 無意識的으로 抱懷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情緒의共感의 紐帶敘이는 결될수 없고 또한 一般人은 어떤 秩序에 對한 歸屬感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前者の 心理에 호소하는 象徵을 「同一化의 象徵」(symbol of identification)이라 한다면 後者の 心理에 呼訴하는 象徵이 「合理化의 象徵」(symbol of rationalization)이라 할수 있겠으며 前者를 「미란다」(Miranda) 後者를 「크레덴다」(Credenda)라고 分類할수 있겠다.⁽⁶⁾ 古代로 邇及할수록 兩者は 混然一體가되어 分類하기 困難하나 漸次分化하여 「크레덴다」는 超越的 非合理的인 것에서 內在的 合理的인 것으로 变천하여 왔던 것이다.⁽⁷⁾ 兩者は 政治的 「이데올로기」나 또는 宣傳으로서 手段化되는 傾向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우리는 現代組織에 있어 官僚的 權威를 正統化하고 階層制 役割防衛를 爲한 「크레덴다」로서 上級者에 對한 尊敬과 服從狀況의 造成 法規萬能主義(또는 法律拘泥主義) 指導性問題 職場內의 人間關係狀況에 있어 個人을 官僚構造에 適應시키려는 管理過程(管理的社會心理) 一元的인 階層的 責任體系論等에 關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3) 上級者에 對한 尊敬과 服從狀況의 造成

階層制 上級者에 對한 尊敬 또는 敬意를 促進하고 支配 服從狀況을 造成한 要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特히 우리나라의 傳統的 文化狀況과 關聯시켜 考察할때 우선 東洋의 傳

(6) C.E. Merriam, political power. pp. 102 ff.

(7) 例컨대 「天命」 또는 「神授權」等의 「이데올로기」에서 「人民의 合意」로 变천하는 等.

統的 專制主義 權力體制를 들수 있겠고 다음 우리나라에서 그 뒷받침이 되여 온 階層的 社會構造 그리고 儒教思想과 家族主義 및 權威主義等의 特徵的 要因을 들수 있겠다. 다음에 以上 各要因에 關하여 檢討하건데 우선 一般的으로 東洋社會에서는 「윗트 포겔」(K.A. Wittfogel)도 말한 바와 같이 古來로 農業社會를 基盤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水稻耕作을 營爲하기 為하여 大規模의 豫備의 水利灌溉事業을 하고 또 洪水防止를 為한 大規模의 豫防事業을 하는 同時に 水利에 對한 爭議를 解決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中央政府의 公共施設과 專制的 賦役및 그 干涉이 必然的이었다고 하겠으며⁽⁸⁾ 여기서 水利的 專制主義(Hydraulic Despotism) 또는 慈惠的 專制主義(Benevolent Despotism)⁽⁹⁾가 成長되고 아울러 專制主義의 恐怖와 強制의 威脅下에 無條件 服從과 盲從이 不可避했던 것이며 服從하는 것 만이 良民의 美德이요 自明의 常識의 公理로 看做되어 道德과 倫理로서 正當化 되었으며 여기서 服從을 為한 訓練과 教育이 課해지고 屈從을 象徵하는 慣例로서 엎드려 절하는 風習이 流行된 것이다.⁽¹⁰⁾

이와같은 東洋的 專制體制(oriental despotism)에 關한 「윗트포겔」의 理論은 韓國에도 適用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韓國의 경우는 特히 그 地政學的位置로 말미아마 歷史上 언제나 國際政治의 戰略的 焦點이 되어 왔기 때문에 對外的 安全을 為한 對備策으로서 中央集權化를 促進했다고 할수 있고 또한 中國과의 사이에는 오탓동안 宗主國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中國의 政治文化의 큰 影響下에서 中央集權화와 專制主義의 權威의 形成이 助長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나아가서 日帝의 植民統治下에서는 日本軍國主義의 專制政治의 壓制를 받어 온 것이다.

이와같은 絶對主義的 狀況下에서는 個人的 自主性이나 尊嚴性이 無視되었음을 勿論하고 統治者의 慈意的으로 設定한 律法에 따라 國民은 無條件 服從하는 義務와 責任이 強要되어 온 것이다.

한편 社會構造나 政治構造에는 嚴格한 階級制度의 傳統이 숨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가령 李朝社會의 四大階級 即 兩班 中人 常人 賤人은 嚴格한 上下의 社會的 階層을 이루고 이중 支配階級인 兩班을 除外한 모든 階級은 被支配階級으로서 兩者間에는 嚴格한 身分上의 差別이 介在하여 前者에게 官職獨占 免稅減刑等의 政治的 經濟的 및 社會的 特權이 許容되고 있는 反面에 後者에게는 오로지 隸屬과 屈從이 強要된 것이다. 그리고 封建的 土農工商의 職業上의 社會的 階級意識이 오탓동안 扶植되어 왔던 것이다. 勿論 이와같은 身分制度는 오늘날 全的으로 或은 어느 程度打破되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다만 前近代的 身分意識이 意識的이거나 또는 無意識의이건 여타가지 形態로 潛在하여 社會構造의 階層性을 形成하고 있음은 否

(8) K.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ch. 2. pp. 23 ff.

(9) op. cit., pp. 126 ff.

(10) op. cit., pp. 149 ff.

認め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人物을 配列 評價하는데 있어서 家門이나 職業같은 身分의 屬性이 그다지 問題되지 않고 個人의 業蹟이나 能力を 그 基準으로 삼으려는 近代的 思考方式이 漸次 支配的 傾向을呈示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만 思考方式에만 끝이고 行動面에는 實踐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아직까지도 男女의 性別을 가리고 또는 先任序列이나 長幼有序 先後輩 年長者 或은 先後任者等의 主로 年齡에 따라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을 區別하는 優劣意識을 가지는 傾向이 뿌리깊게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近代的 社會構造의 階層性이 個人的 能力이나 社會的 業績 또는 財產等을 基準으로 形成되는 것과 對照的으로 前記한 바와 같은 身分的屬性이 社會構造의 階層性의 基準이 되는 경우에 그服從狀況은 보다宿命的이고 全體主義的(Communalistic) 特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韓國에서는 禮儀바르다 라는 말을 上下의 身分秩序를 徹底하게 意識하여 이것을 行動으로 옮기는 것을 意味하며 윗사람의 個人에 對한 身分的인 隸屬이 너무 徹底하기 때문에 主義나 政策에 對한 關心은 副次的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所謂 過剩忠誠도 이와같은 觀點에서 說明되는 것이다 會社에서 일을 하는 것은 會社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會社의 長인 社長을 爲해서이고 스승의 論文에 對하여 批判을 加하지 못하는 것도 스승 個人에 對한 身分的인 隸屬意識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¹²⁾

그리고 韓國社會에서는 윗사람에 服從하는 것이 即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同時に 그를 尊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尊敬하면 尊敬할 수록 이 服從의 態度는 더욱 徹底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身分의 階層秩序가 우리나라에서 儒教思想과 家族主義에 依하여 더욱 扶植되고 助長되었음을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다음 儒教思想의 普及이 服從狀況을 造成하고 있는 面을 檢討하건데 儒教文化는 李朝時代의 文化的 基盤이 되어 왔던 바로서 그것은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 基本的인 生活倫理와 行動原理인 同時に 國家經倫을 包括하는 理念體系로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儒教의 根本思想은 人間은 나면서 부터 善하다는 性善說에 立脚하여 三綱五倫을 基盤으로 하는 儒教의 理念社會의 建設을 提唱하고 있으며 이를 爲하여 父子 夫婦 兄弟 師弟 및 君臣等의 關係에 있어 一種의 嚴格한 服從의 體系를 署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령 集團內에서의 摩擦이나 軋轢 또는 異議나 紛爭等의 慧起가 致命的인 不幸과 損失을 斋來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防禦하고 解決할 方法으로서 各種의 禮式 禮節 및 行動方式이 正式化될뿐더러 모든 人間關係에 있어 上下의 階層의 身分體系가 마련되고 特定의 所謂 「손위사람」에게 紛糾를 最終的으로 判決할 權威가 認定되어 있고 또한 語法에도

(11) 崔在錫著「韓國人の 社會的性格」主로 言語生活의 分析에 依한 接近 1965. 民潮社 pp. 69 ff.

(12) 前揭書. p. 74.

敬語를 使用하여 上下의 身分關係가 表示되는 等 一 種의 順從과 服從의 體系가 形成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家族主義가 服從狀況을 助長하고 있는 경우를 보건데 무릇 家族制度는 典型的인 第一次的 社會組織으로서 그 構成員은 血緣共同體의 紐帶에 依하여 結合되여 家族을 通하여 教育 訓練 政治的保護 宗教的活動 및 生產等의 모든 種類의 人間의 要求를 充足한다 그리고 家族構成員相互間에는 上下의 身分의 序列의 階層秩序가 確立되여 家長에 對한 孝道 長幼 有序 夫婦有別等의 倫理가 強調된다 또한 家族制度는 氏族制 部族制度等의 大家族制度形態로 延長되고 나아가서는 家父長制(patriarchism)로 發展되여 歷史上 우리나라에서 專制主義的 統治體制의 傳統을 促進하는 契機가 되었다 특히 家族間의 人間關係는 社會로 擴大되는 傾向이 있는 것이며 諸社會集團이나 政府內의 公務員集團의 人間關係도 家族內의 그것의 延長과 같은 印象을 풍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家父長的 權威로서 下位者를 抑壓하려는 態度라던가 官廳內의 上下級間의 關係를 父子 또는 兄弟關係같이 羨望 模倣하려는 意識狀況이라든가 또는 家族的인 雾圍氣를 人間關係에 있어 가장 理想的인 것으로 評價하는 等의 社會風潮는 結局 自由 平等한 人間關係가 아니라 上下의 身分秩序에 의한 上下의 親密關係인 것이며 下位者의 服從을 強要하는 狀況인 것이다.

至 韓國人의 言語生活의 一片을 보더라도 가령 親舊의 아버지에 對하여는 아버지라 呼稱하고 그를 自己 아버지와 같이 待接한다 또 自己 할아버지의 年輩의 사람에 對하여는 그를 할아버지로써 또는 年代에 따라 或은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 或은 누님이나 兄님等의 呼稱과 아울러 그에 相應한 待接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呼稱받는 者가 각己 그려한 上位者の 役割을 하여 출것을 期待함은勿論이다. 또한 父母의 子息에 對한 專制的인 行爲도 恩惠라고 意識하고 이 父母에 對한 自己 否定的 服從을 孝라고 觀念하는 個性의 形成은 社會에 까지 擴大適用하여 自己에게 所謂 恩惠를 배운 上位者에 對하여는 그가 어떠한 非合理的 行動을 行하여도 이것을 合理的인 것으로 意識하고 支持한다. 이것이 이른바 義理가 있는 者이며 그렇지 못한 者는 義理를 모르는 所謂 背恩忘德으로 看做되는 것이다.⁽¹³⁾

以上 論及한 專制主義的 權力體制의 傳統 階層的 社會構造 儒教思想 및 家族制度等 우리나라의 傳統的 文化狀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一般的인 性格構造를 權威主義的인 것으로 特徵지우게 한것이다. 그리고 權威主義的 性格構造에서 다음과 같은 特徵이 나타난다. 即 첫째로 人間을 從의인 上下의 階層關係로 序列지워 거기서 優劣關係를 決定한다.

둘째로 弱者에 對하여서는 權威主義的으로 攻擊하고 또는支配하려하고 強者에 對하여서는 卑屈하고 權威主義的 服從을 甘受하려 한다. 即 「후롭」 E. Fromm 이 말하는 所謂 「사디·마소키즘」의 人間 Sadi masochists의 性格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로 優劣의 一般化 傾向

(13) 前揭書. p. 41.

換言하면 他人에 比較하여 어떤 優越한 特性이 있다면 이러한 特性을 一般化하여 모든 面에서 優越한 것 같이 行勢한다. 가령 情緒를 쓴 사람에게는一般的으로 政治的 權威意識뿐만 아니라 經濟的 富와 社會的 威信等이 뒤따르기 때문에 모든 面에서 優越한 것 같이 認定받고 또 行勢한다. 또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經濟外의 價値가 附加된다. 이러한 傾向은 前近代의 社會에 있어 構造上의 分化가 이루워지지 않을수록 더욱 顯著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넷째로 強烈한 權力欲(desire for power)과 利己主義의 敵愾心 또는 憎惡感을 가진다. 다섯째로 黑白論理(또는 二價的 判斷)와 「스테레오·타이프」 stereo type의 傾向이다. 即 모든 世俗의 善惡 強弱 真偽 正否 優劣의 兩極에서 判斷하고 그兩者사이의 無數한 段階와 程度의 差異를 一切 無視하여 그 中間 또는 中和的 立場을 許容하지 않은 不寬容의 思考方式이나 가령 野黨의 主張은 모다 正當하고 與黨의 主張은 모다 虛偽라든가 自由民主主義는 完全無缺하고 社會主義는 無條件 나쁘다는 式의 思考方式이 그것이다. 여기서 政府支持와 反對政策에 對한 賛成과 反對等의 無理한 두 範疇로 分類하는 習性이 助成되고 極端의 派黨의 對立相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로 人間의 尊嚴性을 無視하고 人間을 道具視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와 關聯하여 일곱째로 人間을 그의 能力이나 業蹟을 基準으로 評價하려 하지 않고 그의 年齡 出生 世代(또는 項列), 性, 財產 官職(또는 情緒)와 같은 外的 標識(또는 外面的 特徵) 또는 特定集團에의 歸屬性을 基準으로 評價하려 하는 것이다. 무릇前述한 바와 같은 權威主義의 性格構造의 特徵은 一般的으로 安全된 自我가 形成되지 못하고 그自我의 弱點을 外在의 權威와의 同一化에 依하여 隱蔽하려는 傾向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意識狀況에는 不安과 劣等意識 無力感과 疎外感 그리고 葛藤等이 깃들어 있으며 여기서 適者生存 또는 弱肉強食의 冷嚴한 世界觀이 窽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權威主義의 性格構造는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의 傳統的 社會에서 典型的으로 나타날뿐더러 다른한편에 있어서는 高度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典型의 不安 無力感 疏外感等의 精神的 特徵과 直結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權威主義가 頑固한 守舊的 保守主義와 統合되는 경우에는 傳統的形態의 盲目的인 追從者로 나타나는 것이며 한편 全體主義와 野合될 때는 獨裁政治를 出演케 하는 温床이 될 수도 있는 兩極의 可能性을 모두 内包하게 되는 것이다. 如何間의 權威主義가 우리나라에서 服從狀況을 造成하고 있음은 再論할 餘地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傳統的으로 官僚의 權威主義가 顯著한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即 우리나라에서는 古來로 다른 어떠한 權威보다도 官職 또는 情緒에 緣由하는 權威가 가장 猛威를 떨쳐왔다고 할수 있으며 따라서 官職에 있는者가 그렇지 못한 모든 者보다 優越하며 힘을 가진 強者行勢를 하며 그들만이 上座에 位置하여 그들만이 人間을 道具視하는데 가장 큰 힘을 發揮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흔히 官僚가 되어 情緒의 자리를 占하게 되면 一般大衆이 꿈에도 맛보지 못한 豪華로운 生活을 營爲할 수 있다는 觀念

에서 감투에 執着하고 감투의 味覺에 陶醉하게 된다. 그리고 감투를 쓰면 그 本人自身은 勿論하고 그를 알고만 있어도 社會的道德이나 法律 規則까지도 어거가면서 까지 어떤 利己的不合理한 權益을 守護 또는 獲得할 特權이나 있는듯 行勢한다. 이리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든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等의 俗語가 流行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將次 감투를 가질 수 있는 可能性이 많다고 생각되는 人文系 特히 法政系가 實業系 보다 고 人氣가 있는 傾向이나 또는 地方廳 보다도 中央廳이 私團體보다도 半官半民이 半官半民보다도 官廳이 더 權威가 있다고 意識하는 傾向이나 이와 같은 社會意識은 官僚的 權威主義傾向을 實證하는 것이다.

이렇듯 官僚가 되어야만 行勢할 수 있고 官僚와 結托하여야만 事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官尊思想에서 一般百姓들의 服從志向性이 釀成된 것이며 國民生活에 대한 官의 支配干涉이나 統制가 當然한 것으로 看做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4) 法規萬能主義(또는 法律拘泥主義)

近代法治國思想에 依하면 所謂 法治行政의 原理에 依據하여 行政은 司法과 더불어 法의 테두리 안에서 그 規制를 받게되어 있다. 따라서 行政은 司法에 대하여는 對等性을 主張하나 法에 대하여는 下位에 있어 그 테두리 안에서 活動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問題는 이 경우의 行政을 規律하는 法이 어떠한 性格의 것이며 누구의 손에 依하여 制定된 것인가 하는 點이다. 英國에서는 「法의 支配」 Rule of law의 原則에 따라 이 法이 「앙글로·색슨」 時代以來 그 内容에 많은 变천을 거쳐 오늘날 議會法이 되고 나아가서 이 法이 社會規範과의 一致가 促求되고 있는 것이다. 即 英國에서는 社會規範과 符合되지 않은 法은 本來 惡法으로서 存在意義를 認定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日帝時代에 日本의 近代的法體系의 適用이 強要되었고 日本의 法은 또 歐美諸國 特히 獨逸法 또는 「프로시아」 法을 繼受한 것이었다.⁽¹⁴⁾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近代的 法律制度가 歷史的으로 生成整備된 것이 아니고 外國의 制度를 移植한 것이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法制度가 社會規範으로부터 遊離되지 않을 수 없었고 社會內部에서 自然發生하는 慣習法이나 條理法에 對한 制定法 優位의 思想을 낳게하였다.

여기서는 「法의 支配」의 경우와는 달리 惡法도 形式上 法인 以上 언제나 行政에 대한 指

(14) 우리나라是一面에 있어서는 日本이나 또는 「프로시아」 等 大陸型國家와 類似한 社會的 基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移植한 法의 同化가 比較的 容易했다고 할 수 있고 他面 그것이 近代的 法制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니 만큼 아무리 植民의 壓制의 道具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如何間에 보다 後進의 우리나라의近代화를 위한 組織目標로서 一助가 되었음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針으로서 絶對的優位性을 갖출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法規萬能 또는 法律拘泥관 우리나라 行政官僚制의 獨特한 行動樣式을 齋來하였으며 그리고 形式法의 解釋과 運營에는 專門의 知識과 技術이 要求되었기 때문에 法科出身者が 行政官僚의 中樞的地位를 차지하게 이룬 것이다.

如何間에 解放後 20年間의 立憲史를 通하여 政治的理由로 말미암아 頻繁히 憲法과 各種 法規의 改廢가 있었으나⁽¹⁵⁾ 이러한 制度上의 變革의 動機가 반드시 社會의 效用을 充足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勿論이다. 法規가 社會의 規範이나 效用과 遊離되고 形式論理化 될수록 그러한 法規에 拘泥되는 경우에는 正式的(fomal)인 階層制秩序를 尊重하는 나머지 非權威의이고 自發的인 人間關係를 看過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權力이 合法性을 獨占 Monopoly of legality 하는 狀況을 看過할수 없다.⁽¹⁶⁾ 即 階層的權力支配로 因한 不平不滿을 中和시키는合理的根據를 合法性의 獨占에다 두는 것이다. 가령 階層制秩序를 正當化하고 「크레멘타」 狀況을 造成하기 위한 政治的信條로서 歷史上 많은 主權理論이 試圖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例컨데 神權說「엘리트」理論 élitist theory 및 民主主義의 制度化로서의 普選代議制 法律上의 責任論等이 그것이다.

(5) 指導性問題

事實上 現代 公私行政에 있어서 「리더쉽」研究에 關心이 提高되고 있는 것은 「구우드너」 Alvin Gouldner가 示唆한 바와 같이 實業家나 官僚들의 威信이 失墜되고 또한 그들이 大衆으로부터 漸次로 跖外되고 있기 때문에 그 謬縫策으로 나타난 傾向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¹⁷⁾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代社會에 이르기까지 오랜 歷史를 通하여 「리더쉽」은 「カリスマ」적 意味로 認識되어 왔고⁽¹⁸⁾ 指導者가 先天的인 一定한 英雄的 資質을 保有하고만 있으면 圓滑한 指導關係가 成立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¹⁹⁾ 그리고 現代의 大衆社會狀況下에서 社會心理學者들에 依하여 「리더쉽」은 狀況의 機能이므로 指導者가 어떤 特性을 保有했건 그

(15) 우선 憲法만 하더라도 5次에 걸친 改憲(1952. 7. 7의 第1次, 1954. 11. 29의 第2次, 1960. 6. 15의 第3次, 1960. 11. 29의 第4次, 1962. 12. 26의 第5次)이 있었다.

(16) C.E. Merriam, Political Power, p. 124.

(17) Alvin w. Gouldner, Studies in leadership; leadership and Democratic Ac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pp. 10~11.

(18) "Notes on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leadership" in Gouldner: op. cit., Daniel Bell에 依하면 大部分의 leadership 文獻은 Aristotle이나 Machiavelli에서 源源하여 無思慮한 大衆과 強力한 意志의 指導者. 이 두個의 貴族主義의 事象을 内包하는 것이었다.

(19) 金雲泰著 政治學要論. 1961. pp. 272. 所謂 trait approach가 그것이다.

것이 問題가 아니라 指導의 對象이 될 人民이나 集團의 種類 或은 遂行할 課業의 性格을 包含하여 廣義의 狀況의 與件 如何에 크게 依存하는 것이라고 強調되어 왔던 것이다.⁽²⁰⁾ 그러나 한편 現代 大衆社會에 있어서도 成功的인 執行部 指導者の 特性을 追求하려는 研究는 꾸준히 持續되어 온것이다.⁽²¹⁾

特히나 經營學派일수록 이 指導者の 適切한 資質發見에 깊은 關心을 기울려 온 것이며 따라서 從來 執行機能에 關한 一部 文獻에 있어서도 組織內에서 利用할 수 있는 指導者 個人の 最高의 倫理的 및 知性的 特性 또는 指導者の 英雄的 或은 超人間의 資質의 活用을 中心으로 論해왔던 것이다.⁽²²⁾ 가령 「바아나드」 C. Barnard의 經營者機能論은 指導者の 特性追求에 焦點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의 所論 經營者의 機能은 어떤 超人間이나 또는 英雄의 人物만이 감히 成就할 수 있는 것으로 描寫하고 있다.

그리고 흔히 正統的 組織理論에서는 貴族主義의 性格이 內包되어 上級者は 바로 有力하고 술기롭고 믿음직한 者로 象徵化하는가 하면 下級者は 아주 柔弱하고 無能하고 믿을 수 없고 또 幼稚한 存在라 해서 언제나 當然히 統制 監督을 받어야 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버린다.

그문만 아니라 初期의 「카리스마」性에 內在한 사람과 官職과의 混同意識은 非單 階層의 身分體系에 繼承되었을 뿐더러 많은 「리더쉽」研究나 指導者資質追求 또는 執行部機能研究에 있어서 조차 그 混同意識이 潛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任命된 首長은 指導者라는 것이 自動的으로 假定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代社會科學者들은 一般的으로 headship 과 leadership 은 兩立할 수도 없고同一人이 兩者的 能力を 兼備한다는 것도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²³⁾ 왜냐하면 「리더쉽」은 指導를 받는 者들에 依하여 特定人에게 賦與된 資質이며 이러한 見地에서 「리더」는 恒常 選擇되는데 反하여 Head 는 任命된 者로서 그의 後見人을 為하여 일할 義務는

(20) 前揭書, pp. 272~273. 狀況追求의 方法(situational approach) 參照.

(21) 元來 leadership 은 對人的인 한 作用이기 때문에 「리더쉽」 狀況과 指導者の 特性 그리고 集團效果의 三者の 複合에서 考慮되어야 할것이다.

(22) 例컨대 Robert Tannenbaum에 依하면 管理者は (ㄱ)組織目標을 定하고 (ㄴ)合理性의 基準을 設定하고 (ㄷ)專門화의 程度와 類型을 決定하고 (ㄹ)正式的 權威의 系統을 定하고 (ㅁ)부下에게 必要한 情報을 提供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하여 管理者에게는 一定한 資質이 要求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또한 그는 大部分의 執行機能이 社會의 및 文化的 構造와 過程의 結果임을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Robert Tannenbaum, "Managerial Decision-Making" The Journal of business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Vol. XXIII, 1950)

(23) leadership 의 役割이 成員의 意見 態度 行動에 對한 影響力으로서 集團의 同一化를 促求하고 集團의 凝結과 粘着을 俾하며 指導者の 情緒의이며 治療의인 機能과 關聯이 있다면 headship 은 組織의 正式的인 長(Head)의 作業中心의 機能(task orientation function)과 關聯되며 따라서 成員의 行動을 抑制하거나 그들의 意慾을挫折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兩者는 혼히 相異한 態度와 役割이 要求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그 兩者の 能力を 兼備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非階層集團에 있어서는 그 leader를 決定하는 것조차 매우 困難한 일이며 이와 反對로 Head 는 階層集團에서 任命되는 것이다.

있은 지언정 그의 部下를 爲한 指導者는 될 수 없으며 그는 적어도 그의 後見人과 部下와의兩者間의 完全한 利害關係의 調和가 없는限 亦是 그의 後見人の 利益增進을 爲하여 奉仕하여야 하는 것이다. 事實上 後見人과 部下와의兩者間의 利害關係가 完全히 調和된다는 것은現實的으로 아주 드문 일이며 그럼에도 不拘하고兩者間의衝突이 現實的으로 없는것 같이假裝하는 象徵이 操作되는바 이것이 또한 官僚制權威를 正統化하는 Credenda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非階層的인 小集團에 있어서는 自然發生的으로 몇個의 「리더쉽」役割이 나타나는 것이며 어느 個人이 單獨으로 이모든 役割을 遂行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그狀況이 變動함에 따라 「리더쉽」役割이 甲에서 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正式的으로 構成된 階層制集團에 있어서는 正式的 上級者の 階層的 權利로 因하여 嚴密한 意味에서 「리더쉽」現象이나 타나기가 不可能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正式的 headship은 大體로 leadership의 發生과는 兩立할수 없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리더쉽」研究에 있어 亦是 上級職位에 있는者の 英雄的 또는 「카리스마」의 特性을 關聯시켜追求하는 傾向이 있음은 이것 또한 官僚的 權威를 正統化하는 Credenda로서의 意味를 内包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 가령 指導者の 集團牽制役割을 看過하고 그의 集團을 滿足시키는 役割만을 強調하던가 또는 指導者에 依한 集團目標의 歪曲 寡頭制 또는 操縱工作等의 現象을 故意로 無視하던가 혹은 集團에 對한 影響力增進에만 沖汲하는 等一連의 行態도 同一한 Credenda의 意味를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쉽」研究에 있어서 指導者の 「카리스마」性의 強調와 더불어 制度的 構造보다도 特定 個人에게 關心의 焦點을 두려는 傾向이 顯著하고 또 制度上の 變動에 對한一切의 潛在的 壓力を 忌避하려는 傾向이 있으나 이와같은諸傾向도 그 本質을 追窮하면 結局 衰退해가는 官僚權威의 正統性을 補強하려는 「이데오로기」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制度의 改廢보다도 運營의 妙를 發揮하여야 한다는 命題는 우리나라에 있어 一種의 格言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拙速主義의 制度改革과 朝令暮改式 制度改廢에 따르는各種弊害를 警戒하는 命題인 同時に 組織管理에 있어 人的狀況의 重要性을 強調한 것으로서 우리의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매우 實感이 나는 實證의 命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巨視的 觀點에서 볼 때 制度 또는 構造的 狀況을 떠나서 問題의 真正한 解決을 期待할 수 없다는 것도 當然히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6) 人間關係學 또는 管理的社會心理學의 擡頭

最近 「리더쉽」研究는 管理 또는 監督에 關한 研究로 發展하였다. 이러한 研究는 結局 雇傭者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最大의 “榨取”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焦點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따라서 財閥들에 依하여 財政的後援을 받아 온 것이다. 專門化의 促進에 따라 協同의 課題에 關한 管理者들의 切實한 關心은 自然的으로 提高된 것이었으나 그 結果 摧毀된 管理社會學(또는 人間關係學)은 既存의 制度의 構造에 個人을 適用(fitting) 시킬 수 있다는 樂觀的 可能性을 強調함으로서 結果的으로 制度의 變化의 必要性을 認定치 않으려는 理念을 遂行하게 된 것이다.

現代官僚組織이 專門化의 結果 必然的으로 多元化된 것이지만 概念上으로는 全體主義體制와 같은 「一元的」 Monocratic, Monistic, Monolithic 構造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은 「階層的役割概念」 hierarchical role definition에서 由來된 것이며 이러한 構造下에서만 葛藤이 存在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如斯한 葛藤이 正統化되거나 또는 公式的으로 認定될 수는 없다. 무릇 集團內 葛藤 Intergroup Conflict의 公式的認定은 目標의 分裂 또는 그에 대한 意見差異를 正當화하고 결충 過程을 必要로 한다. 이러한 일들은 結果的으로 階層的 權力を 弱化시키는 것이므로 現代官僚組織은 이러한 組織內의 葛藤을 正式的으로 解決하려 들거나 妥協하려 들지 않고 다만 이러한 葛藤을 擬制나 神話에 依하여 陰蔽 또는 否定해 버리고 個人에게 그탓을 돌려 버리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음을 從從 보게 된다.⁽²⁴⁾

如何間에 일단 葛藤이 發生한 경우에는 이러한 葛藤은 討論 會議 教育 또는 訓練等에 依한 分析的過程이나 또는 意思疏通을 通하여 過誤와 誤解를 解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萬事가 圓滿히 葛藤 없이 處理되며는 모든 個人이 웃바르게 생각하고 健全한 탓이라고 보지만 萬一 葛藤이 더 계속되면 葛藤에 加擔하거나 關與한 모든 個人을 除去 또는 龍芻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葛藤이 組織의 正統性을 침범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이리하여 組織이나 制度의 「圓滑한 運營」 Smooth Operation이 바로 組織과 制度를 正統化하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官僚制는 一般的인 權限의 體系와 더불어 組織內 葛藤의 活氣를 否定해 버리는 理念을 必要로 했으며 所謂管理社會學 Managerial Sociology은 바로 이러한 必要에迎合하는 役割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리더쉽」研究가 잃어버린 「카리스마」를 되찾아줌과 同時에 階層的地位와 役割을 正統化시키는데 寄與해 왔으며 管理社會學은 全體的 制度構造에 正統性을 供給해 주었다.

그리고 個人은 構造에 適合하게 變化될 수 있기 때문에 個人에 맞는 構造 變化는 不必要

(24) 周知하는 바와같이 全體主義共產國家에서는 모든 組織構成員은 同一한 所謂「참된目標」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組織內의 葛藤은 오로지 資本主義의 殘滓가 個人良心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葛藤은 正統의으로 認定받지 못하게 된다. (Reinhard Bendix,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6. p. 367)

하게 된 것이다. 即 既存構造에 個人을 適用시키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릇 管理社會學이란 概念이 適切할지 與否는 姑捨하고 그 基本的 idea는 社會學과 社會心理學에서 흘러 나온 것이며 이 研究의 基本的目的은 組織에 對한 個人的 特히 勞動者의 適應을 簡便 하므로서 또한 事故와 缺勤을 痛慨하고 士氣를 振作하므로서 結局 勞動價格 labor cost의 감소와 生產量을 增加시키려는 意圖에서 出發한 것이다.

前述한 所謂 人間關係學 또는 管理社會心理學이 理論上 여러가지 面에서 批判의 餘地가 많은 것은 事實이나⁽²⁵⁾ 여기서 이 學派의 特徵으로서 關心의 範圍가 偏狹하고 組織內 葛藤을 否定하며 나아가서는 大衆操作의 無限한 可能性을 假定하고 있는 等의 盲點에 關하여 ↑單히 論及하고자 한다.

組織의 社會心理學의 研究가 企業界의 管理階層의 財政的後援下에서 推進되어 온 만큼 研究의 焦點을 管理分野에 局限시켜 特히 勞動條件으로서 士氣와 生產高問題에 重點을 두는 것은 理解할 수 있는 바이나 結局「拉斯威」Harold Lasswell도 指摘한 바와 같이 이 學派는 雇傭者の 運命을 決定的으로 左右하는 活動의 領域보다도 훨씬 偏狹한 範圍에만 關心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²⁶⁾. 事實上 이 研究方法은 階層制의 밑바닥은 살살히 밝혀지면서도 上層에 갈수록 점점 덜 밝혀져서 最上層은 깊숙한채로 나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偏見으로 말미암아 結局 事實上 일이 벌어지고 있는 制度的與件에 대해서는 模糊한채로 나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管理社會心理學에서는 組織內의 葛藤을 個人的으로 脱線한 行態로 보고 이를 封鎖하려고 하며 이 葛藤은 個人을 民主主義 集團에 適切히 統合시키던지 또는 作業狀況에 있어 人間關係를 改善하고자 努力하던지 또는 同一한 사람들의 第一次集團形成을 促進하는 等의 方法으로 解消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²⁷⁾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民主主義의” 集團이란 若干 特異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서 그것은 一種의 溫情主義와 人道主義的 集團을 示唆하는 것이며 거기서는 上級者は 人情과 自制로서 그의 支配權限을 行使한다는 것이다.⁽²⁸⁾ 如何間에 個人을 民主集團에 統合할것을 強調하는 이러한 傾向은 한便에 있어 民主的指導技能을 重要視하며 結局 集團內에서 葛藤이 起起되는 것은 適切한 指導技能이 不足한 탓이라고 보고 人間操縱의 科學의 發展을 促求한 것이며 아울러 意思疏通의 技能을 強調하게 이론 것이다. 이들의 見解에 依하면 萬一 모든 사람들이 所定된 狀況下에서 狀況에 對하여 同一한 感知를 가진다면 葛藤이 發生할 理가 없

(25) 金雲泰著 行政學原論. 1964. pp. 59~63. 77~81 參照.

(26) Harold 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48. p. 193. 그는 이 學派의 研究를 “Contended Cow” approach라고 애용하고 있다.

(27) Elton Mayo, Human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s, New York. The Macmillian Co. 1933. F.J. Roethlisberger, management and mora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1. Kurt Lewin, Resolving Social Conflict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28) Ronald Lippitt, Training in Community Relation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9. p. 144.

음으로 官僚制內에서 意思疏通의 通信技術을 發展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葛藤은 單純히 自身을 他者の 立場과 바꾸어 놀 수 있는 互讓의 能力이 없는데서 起因하느니 만큼 所謂「精神劇」psychodrama 이라고 하여 個人이 서로 그의 役割을 代行하여 보고 또 自身과 他者の 社會的 洞察能力を 發展시키는 訓練이 展開되어 온 것이다.⁽²⁹⁾

要컨데 이 學派에서는 葛藤은 客觀的인 事實이나 또는 客觀的으로 根據가 있는 것이 아니고 個人的인 經驗이라고 斷定한다. 또 그것은 能熟한 「리더쉽」에 의하여 個人을 集團속에 適切히 統合하지 못한데서 惹起하는 것이며 適切한 通信과 社會參與로서 現實에 대한 歪曲된 認識을 除去할 수 있도록 能熟한 「리더쉽」을 發揮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管理社會心理學의 理念으로서 人間은 無限히 操縱될 수 있다고 假定하는 傾向이 妥當하지 않음을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 學派의 見解로는 結局 어떤 管理規範을 設定하고 雇傭者들로 하여금 그 規範을 志向하도록 操縱할 수 있다고 樂觀하지만 人間性의 本質上 거기에는 限界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葛藤을 統制 또는 管理한다는 것은 理論面에서나 또는 實際面에서 抑壓的 行爲에 不過한 것이고 設使 葛藤이 抑壓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大概 그것은 表面上만이고 虛偽의 調和에 不過한 것이다. 이렇듯 管理社會心理學은 여리가지 盲點을 지닌채 最近 美國을 中心으로 流行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導入되어 많은 影響을 주고 있는 바 結果的으로 階層制役割을 守護하는 力을 하여온 것이다.

(7) 一元的인 階層制의 責任體系

여기서 우리는 階層制의 正統性을 防禦하는데 重要한 또 하나의 理念體系인 正式的인 官僚制의 責任概念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무릇 正式的階層制下에서는 上下의 命令服從의 一般的公式이 適用됨으로서 組織內의 各個人은 行動할 權利를 上級者로 부터 委任받으며 또 그 權利의 行使와 結果에 대하여는 그에게만 責任을 진다. 또 그 次例로 自身은 部下들에게 權限을 委任하고 그들로 하여금自己에게 責任을 지도록 한다.

設使 行政機能이 漸次 專門家에게로 移讓되어 따라서 權威가 그들에게 委任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行爲에 대한 責任은 亦是 階層의 上級者가 지게 마련인 것이다. 即 實際로 일을 하는 것은 幕僚專門家이지만 그일을 하는 權利나 責任은 系線執行官이 保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는 어느 意味에서는 專門家로 부터 機能을 박탈당하고 있는 職位를 응호하며 正當化하는 것 같기도 하다. 如何間에 이 경우에 責任이란 概念에는 가령 人事權 組織權 政策決定

(29) V.A. Thompson, modern organization. 1961. p. 127.

權等의 權威를 包括하고 있는 同時に 義務 또는 責務를 内包하기도 한 것이며 이 義務의 内包가 곧 「이데오로기」의 要因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權利(또는 資格 또는 管轄權)로서의 責任과 義務로서의 責任사이에는 混亂이 介在하다 權利로서의 責任은 非難받을 理由가 없고 오직 義務로서의 責任만이 義務不履行時에 非難을 받는 責任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非難에 대한 責任은 義務와 똑같은 것이며 拘束性을 지닌다. 그러나 一元的理論에서의 個個人의 義務는 곧 그에 上官에 대한 義務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責任의 一元的概念은 文化的으로 定義된 階層制의 役割關係(即 權利와 義務關係)를 再調整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事實上의 權威와 또 正式的으로 期待되는 權威사이에 相違가 있게 되고 또 兩者가 符合되지 않은 것은 專門化에 依해 必然적으로 促進되는 集權化傾向에 起因되거나 또는 어떤 權力的行爲에 依해서 組織上 非階層的 地位에 있는 者에게 權威가 委任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一元的責任概念에 있어서는 名目上 생각되는 것 보다 더욱 複雜하게 萬一 上官이 그의 指示를 無視하거나 違反한 部下의 行爲로 말미암아 信任이나 非難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上官의 階層的權利는 轉位하여 곧 義務가 되는 것이며 또 이러한 그의 部下와의 關係는 바로 그의 上官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同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例컨대 萬若에 部下가 上官의 命令 또는 權威를 無視하고서 階層的으로 賦課된 目標를 成就하였고서 結果的으로 그 上官은 信任을 받게 되는 경우 그 上官의 權威는 適切한 것이 못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萬若에 階層的으로 賦與된 目標×를 遂行하기 위한 上官의 正確한 命令이 그의 部下에 依하여 無視되여 따라서 그 結果로 失敗한데 대한 責任을 上官自身이 지는 경우도 그의 權威는 無意味한 것이 된다. 이러한 推理를 擴大하면 몇階層의 밑의 部下에 依한 下剋上이 있는 경우에도 그는 그의 上官에 依하여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一元的責任理論에 있어 階層的 權利에 대한 重大한挑戰은 事件處理를 위한 單純한 形式上의 權利에도 不拘하고 그 事件에 實質上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能力이 없고 그런데도 그 事件에 대한 責任만을 負擔하는 경우에 明白히 드러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가 影響을 미칠 수 없는 事件이나 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거나 또는 稱讚을 받게 된다면 그는 事實上 權利는 없음에도 不拘하고 다만 道德的으로 그 結果에 대하여 非難이건 稱讚이건 一般的의 責任을 져야 하는 것으로 看做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所謂 責任이란 贖罪 Scapegoat型의 純粹한 儀式的의 責任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萬若에 一元論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部下의 行動이 主로 上官에 依하여 決定되며 지는 것이라면——따라서 上官이 部下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일히 指示·監督하는 경우에는 部下의 行爲에 대하여 上官이 責任을 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듯

部下의 行爲에 대한 그 上官에 대한 非難을 暗示하는 所謂 責任 Responsibility 은 階層制役割을 防禦해 주는 役割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責任觀念을 다음과 같이 推理한다면 論理的으로는 無效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即 上官의 行動은 그위의 上官에 의하여 決定되고 또 그 上官도 그위의 上官에 依하여 決定되므로 結局 階層制의 頂點에 있는 者를 除外하고는 그 밑의 階層에 있는 上官들에게는 責任을 질 理由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所謂 責任이란 概念이 지니고 있는 이데오로기 的 意義를 度外視한다면 一元論에 있어 部下의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고 할때 그「責任」(Responsibility)은 嚴格한 意味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責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論理的으로 權利(Right)도 아니고 非難을 받는 意味(Blamability)의 責任(이것이 이 用語의 普遍的 意義라 하겠다)도 아니라 그럼으로 上官이 部下의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고 할 경우에 그 責任이란 用語는 正式的階層制의 通路上 部下의 行爲에 關한 質疑應答의 正式的經由를 밝히는데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것은 法律上의 責任 Accountability 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Responsibility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形式理論에 있어서는 누가 非難을 받아야 할지 밝히지 않고 다만 그 上官이 非難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暗示되고 있을뿐이다. 그리고 一元論에서 上官은 自己의 上官에게 그의 部下의 行爲를 說明 또는 報告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의 責任이前述한 法律上의 責任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如斯한 法律上의 責任은 事實上 어떤 影響力を 미칠 수 있는 能力이나 또는 權力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 그의 事實上의 權威나 또는 管轄權보다도 增大해 지는 傾向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專門化가 促進된수록 中央集權된 幕僚機構로 부터 그의 系線部下에 미치는 專門的影響力이 增大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非難을 받은 意味에서의 責任(Responsibility as Blamability)은 法律上의 責任(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과는 달리 形式理論이 아니고 實質上의 行爲에 대한 賞罰이 뒷따른다. 따라서 흔히 身分體系에서는 階層上部에 올라갈수록 事實上의 責任의 所在가 模糊化하며 最高職位는 事實上 責任이 免除되는 것이다. 이것은 身分體系의 한 後光이라고 하겠다.

i) 問題에 關하여 좀 具體的으로 分析하면 身分體系內에서는 누구나 非難받는 것을 두려워 할 뿐더러 非難自體가 神聖胃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報復의 潛在性때문에 어떤 사람이 無力해지면 그럴수록 그를 非難하기는 容易한 것이다. 따라서 階層制內에서 下位에 있는者 일수록 報復을 覺悟하지 않은한 上級者에 대하여 非難하기는 事實上 힘드는 것이다. 그리고 高位身分의 사람들은 思慮깊게 選定된 社會的階層으로서의 팀을 形成하고 自己防衛의 手段으로서의 各種의 權利와 權力を 保有할 뿐더러 그 構成員을 保護하므로서 팀의 安定性과 統合性을 保存하고자 努力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高位職位의 權威에 摬制性과 象徵化가 있음에도 不契하고 高位者는 事實上은 分明히 日常 事件處理에 있어서는 많은

影響力を發揮하지 않거나 或은 發揮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다. 그려하기 때문에 實際的으로 實效性 있는 忠告를 하고 또는 上級者의 「사인」與否에 關하여 「메모」를 提示하여 事實上 影響力を 發揮하는 者를 賖罪者(scapegoat)로서 찾으려는 傾向이 있으며 그들을 一旦 有事時에 非難의 對象으로 하고 實際上 被告로서의 防禦役割을 擔當케 하려는 傾向이 나타난다. 이렇듯前述한 바와 같이 高位職位에 대한 非難의 困難性 報復力이 적은 사람에 대한 非難의 容易性 또한 實際的犠牲者를 찾으려는 傾向等으로 말미암아 非難이 階層組織의 下層으로 옮겨가게 한 것이다. 이와 꼭같은 理由에서 事實上은 오히려 사소한 일인데도 不拘하고 形式上 非難의 對象이 되는 傾向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豫想도 하지 않던 영투당투한 일에 責任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本來 責任이란 概念은 特定한 事件을 特定人과 關聯시켜 認識하려는 態度에서 由來한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責任轉嫁에 關한 詭辯도 社會가 原始國家로 부터 發展함에 따라 漸次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 經過을 살펴보건데 當初에는 特定個人은 그의 意圖와는 相關없이 事件의 要件이 되기만 하면 責任을 져야했다. 그 後에 그는 그의 意圖와는 相關없지만 事件結果를豫見하고 또 事件의 要件이되는 경우에 責任을 졌다. 그보다 後에는 그가 意圖한 경우에만 責任을 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個人的意圖가 그의 環境에 依한 것이라 여기고 責任으로부터 그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면 所謂 一元的責任理論은 가장 原始的時代의 遺物인 것이다. 왜냐하면 結果를豫見하지 못했고 事件의 하나의 必要한 要件도 아니었고 意圖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責任을 지고 非難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論이 適用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組織에 있어 責任은 古代 階層制의 scapegoat役割을 儀式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事實上 官僚的 階層制를 賖罪 scapegoats의 制度的體系로서 說明하는 것이 얼마나 現實과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은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다만 一元的責任은 理論上 혼돈을 招來하고 있으며 事實上 階層的役割을 保護하는 理念의 武器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要컨데 外延 denotation 보다는 内包 connotation에 依한 責任에 대한 強調는 多分히 「카리스마」의인 것이라 하겠다.

무릇 責任의 轉嫁는 上官의 權威를 增大시키고 保護해 주는 것이며 上官은 非難할 수 있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部下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게 된다. 그리고 한층 더한 上級者の 非難이 보다 더 크다는 信念에서 그의 權力 身分 또는 特權을 보다더 크게 正統化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以上 概述한 바와 같이 一元的인 階層制의 責任概念은 階層制의 機能을 防禦하는 이데올로기的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며 如斯한 理論이 實際로 實效性이 없으며 또 現實的으로

…… 속 심으로 두만한 나위도 없는 것이다.

以上 階層制役割의 防衛를 위한 「크레덴다」에 關하여 論하였으나 다음에 그 「미란다」
Miranda로서 實在에 關한 情報統制 印象管理와 階層制職位 및 役割에 關한 象徵操作에 관
하여 論하고자 한다.

(8) 劇化的 樣相

무릇 組織內에서 人間은 우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갖는 印象을 統制하고 自身의 表象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情報나 端緒를 統制하려고 努力하며 이를 위하여
各種 象徵을 操作한다. 가령 專門家는 그들대로 또 階層制의 上位者도 이들대로 그들의 役
割이나 地位를 擴張 또는 守護하기 위하여 印象管理나 情報統制 또는 象徵操作을 하는 것인
다.

여기에서는 階層制內의 劇化的樣相으로서의 象徵操作에 關하여 主로 論하고자 한다.⁽³⁰⁾
무릇 「리더쉽」이나 身分 또는 權力에 대한 認識은 대체로 通信에 依存한 것이며⁽³¹⁾ 사람
들은 自身이 얻는 情報를 기준으로 하여 「리더쉽」身分 또는 權力を 評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特定의 權威 身分 및 權力を 위한 闘爭의 重要한 技術로서 情報의 統制와 印
象의 管理가 重要한 것이다.

階層制의 役割과 地位에 關한 印象을 연극적으로 管理하는데 있어서 偶發의 人間個性의
發露를 그때 그때 適切히 統制하려는 傾向은 오늘날 이미 止揚되고 制度的으로 組織化하려
는 傾向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換言하면 現代官僚制에 있어 階層制를 成功的으로 活用
하는 길은 印象管理를 위한 能力과 慾慾에 大部分 依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行動樣式과 執行方式이 專門化的 促進과 行政技術의 複雜化에 따르는 階層制役割
의 衰退을 克服하고 階層制機能의 正統性을 維持하기 위한 執行手段으로서 繫要하기 때문이
다. 가령 行政이 專門化됨에 따라 目標達成을 위하여 專門的技術과 能力이 必要하고 專門技
術者의 影響力이 增大되는 反面에 階層制의 正式的 formal 役割은 事實上 相對的으로 制限되
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事實을 陰蔽하기 위한 神話 象徵 擬制 操作이 現代官僚

(30) 勿論 專門家(specialist)도 象徵을 操作하는 劇化的側面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專門家の 象徵操
作은 特히 信任을 獲得하려는 慾求와 關聯된다. 一例로서 看護婦를 白衣天使라고 또 醫師는
白衣卡운을 입는것이 어테서나 慣例가 되어있으나 그것은 潔白과 純潔을 象徵하는 것이며 또 醫
師의 주머니에 있는 聽診器는 그의 神秘의 專門的知識을 象徵한다. 또 萬一 專門家の 役割이
認定되고 있지 않으면 自身의 重要性의 誇張과 輕視當하고 있는데 대한 不平 또는 不安意識을
象徵하기도 한다.

(31) J.W. Thibaut and H.H. Kelley.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9. p. 122~4

組織管理에서 普遍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例컨데 上級者の 正式的 通信에 대한 統制權으로 因하여 組織이 無能해 지면 必然코 階層制의 正式的命令系統을 度外視하여 機能的으로 相對方과 接觸하는 精巧한 非正式的 informal 通信通路를 開拓하고 또 發展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非正式的 通路의 存在를 勿論 公式的으로서는 否認하겠지만 上級者로서는 實上 그 存在를 默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上級者の 署名이 그 自身 決定한 것 같이 假裝하기 위하여 이루워진다. 且 組織圖表에는 흔히 非正式的 通信을 表示하지 않은 것이 慣例이지만 記載된다면 그 不法性에 대한 汚點을 象徵하는듯 點線으로 表記한다. 一般的으로 非正式의인것 또는 非公式의인 措置는 不法의인 것으로 看做되지만, 内密의으로는 不可避容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組織上의 業務가 内密의 方法에 依하여 이루워지고 있는 것이 實現이다. 그리고 專門家들의 實事上의 影響力과 階層制의 正式的權威와의 사이의 衝突을 否定 또는 음폐할려는 一般的的傾向으로서 系線과 幕僚의 神話를 들을 수 있다. 即 專門家나 幕僚는 오로지 思索하고 忠告하는데 끌이지 權威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實事上 이것이 擬制로 神話에 不過함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또한 二重의 意味를 內包한 通信으로 實現을 隱蔽하는 경우도 있다. 即 通信의 公開된 表現은 正式的 階層制關係에 符合되지만 實事上은 거기에는 다른 意味가 隱蔽되어 있는 경우로서 따라서 表現과 意味가 相異하여 顯在的表現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潛在的通信으로 意味를 把握하여 階層制의 役割과 專門家의 役割間의 乖離現象을 隱蔽하기도 하는 것이다.⁽³²⁾

이렇듯 現代官僚組織內에서 衰退하여 가는 階層制權威를 正統化하기 위한 劇化的努力이 展開되고 있음을 指摘하였으나 다음에 上級者와 下級者 및 管理過程에서의 劇化的樣相에 關하여 論及하고자 한다.

무릇 階層制 役割을 劇化할수록 上下의 階級意識은 強化되어 上級者は 마치 가장 善하고 英雄的이고 萬能的이고 카리스마的 資質의 所有者인것 처럼 象徵化되는 것이며 오히려 上級者は 技術的 能力이나 專門性을 無視 또는 輕視하는 傾向이 있고 또 階層制內의 上級者は 專門家의 役割을 蔑視함으로서 그自身的 役割을 守護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階層的職位에 있는 사람이 가장 奔走한것같이 보이며 가장 바쁜 사람일수록 當然히 組織內에서 가장 所重한 待遇를 받고 가장 注目的 對象이 되고 가장 誠實하고 忠實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階層에 있는 사람은 階層的特權이라 할까 또는 尊敬을 받을 權利와 같은 特惠를 享受하는 것이며 특히 그들을 위한 身分體系는 精巧한 象徵操作에 의하여 지향되고 있다. 例컨데 各種勳章稱號儀式裝飾制服彫像等의 身分象徵과 特殊한 家具 華麗

(32) Erving Goffman;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o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9. pp. 194~5.

하는 雄壯한 專用事務室의 構造와 各種裝飾 等의 象徵的裝置等이 그것이다. ⁽³³⁾

王 身分體系維持를 위해서는 日常的으로 所定의 脚本에 따라 各種의 演劇이 演出되는 것인데 이 演劇의 效果는 聽衆이 그리 많지 않고 相互接觸의 期間이 짧을 때에 더욱 크게 거둘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身分體系에 있어서는 높은 身分의 사람들에게 他者와 接觸하는데 있어 主導權을 갖게 해줌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演劇의 期間과 場所와 時間과 出演者 및 聽衆等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로서 그는 自意대로 面接이나 接觸을 統制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그自身 組織을 위해서는 매우 分주하고 貴重한 存在라는 意識狀況을 造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 幕後의 情報를 聽衆이 알게되면 演劇의 效果는 半減하기 때문에 上級者は 下級者와 親近하지 못하도록 忠告하고 兩者間의 社會的距離를 維持하도록 努力한다.

한편 下級者側도 身分體系를 維持하기 위하여 特定한 劇化的行動樣式을 따라야 하는데一般的으로 下級者는 上級者를 어려워하고 身分體系의 演劇을 忠實히 演出할뿐더러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일일이 先導的인 上級者の 指示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態勢를 가진 것 같은 印象이 必要하며 또한 上級者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下級者の 생각과 行爲는 모두 上級者の 行爲라고 생각케 하는 印象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上級者は 가장 바쁘고 가장 重要한 사람이며 따라서 下級者들과 接觸할 機會를 얻기가 困難한 것 같은 印象이 주어짐으로 大部分의 下級者는 上級者와는 簡單하게 그리고 뜨끔히 通信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며 가령 面接이나 通信 및 「메모」도 되도록 적게 그리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고 自認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歷史上 人間의 創造的이고 藝術的인 各種考案이 體系의 方式과 政治意識目的下에서 魅力的인 「미란다」로서 넓히 利用되어 왔으며 此種의 象徵類型에 關하여 여기서 詳細하게 列舉하여 說明하는 것은 省略하겠거니와 現在 우리나라에서 利用되고 있는 것 中에 重要的 方式으로서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即 ① 指導者の 寫眞과 肖像 ② 國旗와 友邦國의 旗 ③ 記念의 曆日과 記念의 週期 ④ 公共場所와 記念의 建造場 ⑤ 各種音樂 ⑥ 各種藝術의 意匠(旗幟, 裝飾, 肖像, 制服, 寫眞, 影像, 銅像, 郵票, 書畫, 歷史의 遺物, 骨董品等) ⑦ 逸話와 歷史 ⑧ 集團의 儀禮와 儀式(朝禮 各種行事 國民儀禮等)等이 그 것이다. ⁽³⁴⁾

以上으로서 우리는 前號(第三卷第一號 1965 Vol. Ⅲ No. 2)와 本號에 걸쳐 現代官僚組織이 專門化됨에 따라 傳統的인 階層制의 正統性이 衰退해 지고 이에 따라 階層制役割 防衛를

(33) C.E. Merriam, political power. 1934. p. 105. Chester Barnard "Functions and pathology of status systems in formal organizations" in W.F. Whyte, ed, Industry and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46.

(34) 金雲泰著 政治學要論 1961. 博英社 pp. 334 ff. 參考.

爲한 여러가지 努力이 이루어져 論을 考察하였다. 이로서 現代 官僚組織은 큰 矛盾에 逢着하고 있다 하겠으며 그리고 韓國 官僚組織의 矛盾에는 韓國文化의 固有한 特性이 內在하고 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이 矛盾의 逢着을 打開하기 為하여 人間諸關係의 問題가 真摯하게 다루어져야 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官僚組織內에서 새로운 人間協同의 方式으로서 道德規範에 뒷받침이 되는 새로운 有機的 連帶意識에 關한 相互理解와 깊은 認識이 促求되고 있다고 본다.